

## 폭력의 정의

[violence , 暴力]

요약 -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

폭력의 발현형태(發現形態)는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폭력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생물학 ·심리학 ·인류학 ·정치학 ·철학 등이 공동으로, 다양한 폭력현상군(暴力現象群)을 인식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성에 있어서 폭력의 발생을 본능적 ·생득적(生得的)으로 보느냐, 환경적 ·학습적(學習的)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 공격행동은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인간의 투쟁을 본능적인 것으로 본 사람은 S.프로이트이다. 또 다른 본능설에는 K.Z.로렌츠에 의한 동물생태학면에서 본 이론(1966)이 있다. 이에 비하여 욕구불만의 반작용으로서 공격이론을 학습설의 입장에서 전개한 학자가 J.덜러드인데 이를 '욕구불만공격설'이라고 한다. 또 현대의 유력한 학습설로는 A.반두라의 '관찰 학습설'이 있다. 폭력의 발생근원은 사회적이므로, 폭력적 행위가 개인적 특성으로 돌려지는 듯이 " " 보여도, 궁극에는 사회적 요인이 가로놓여 있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비합법적 ·반사회적 ·범죄적인 경우의 여러 형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합법적인 폭력이나, 반드시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의 폭력도 존재한다. 국가권력(state power)은 물리적 강제력(physical power)을 최후의 결정적 수단으로 하여, 군대 ·경찰 ·교도소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이 물리적 강제력은 본질에 있어서 폭력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반사회적인 폭력과 달라, 한편으로는 법에 의하여(합법성),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정당성), 그 사회에서 민중의 승인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을 권력이라 한다. 정치세계에서는 정당성 ·합법성이 결여된 물리적 강제력을 모두 폭력으로 단정한다.

한편, 반(反)권력의 폭력은 합법성을 가지지 않지만, 정치운동으로서 쓰일 경우 반체제 입장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혁명론'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수단으로서의 폭력을 일체 배제하는 것이 간디의 '비폭력주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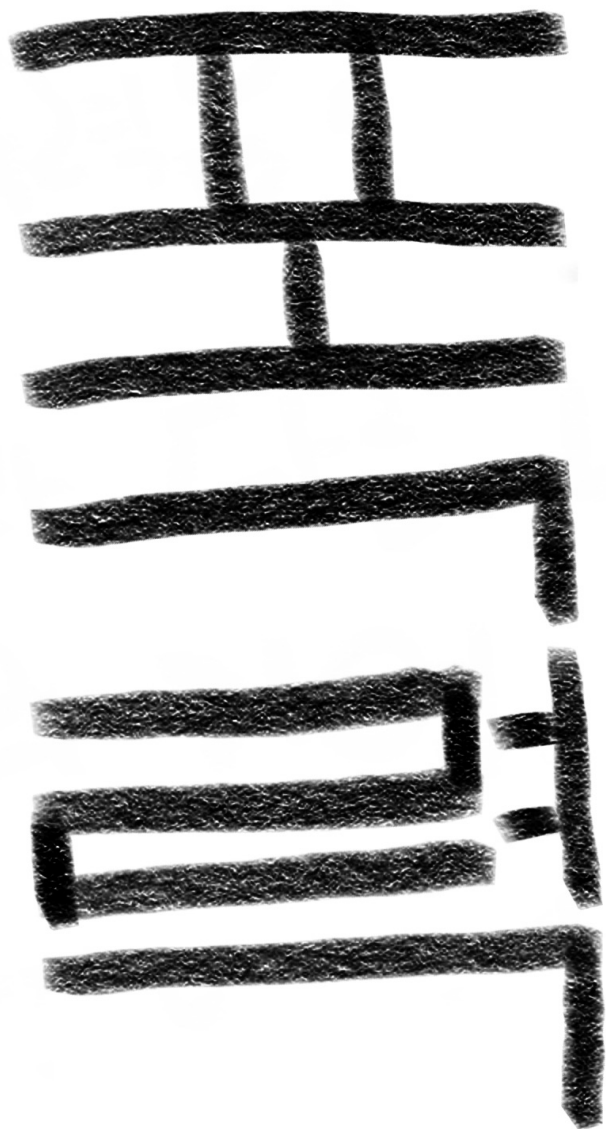
폭력의 정의에 대해 공부를 하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폭력은 권력이 다 라는 정의가 성립되어 버린 것이다. 다수를 차지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소수의 의견은 따르지 않거나 들을 필요가 없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선점하거나 확인한다. 어느 누구도 소수그룹에 들어 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수그룹에 속하여 자신또한 옳은 의견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또 자신의 재산이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해 재산을 이용해 더욱 많은 재력의 확장을 시도한다. 그리고 항상 성공할 것이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집값은 투기로 인해 더 비싸지게 되고 집을 사기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 몇년후에는 집을 마련해야지 라고 계획하고 계획하겠지만 돈을 모으는 동안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게임판의 룰은 그들이 항상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살아간다. 그들의 쉬는 쉬지 못하는 이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의 룰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다. 나는 어렸을때부터 이런 폭력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부모님은 내가 남자다워야 한다며 음식을 팍팍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손으로 고기덩어리를 잡고 뜯어 먹는 모습을 보고싶어 하셨다. 하지만 나는 손으로 고기를 잡고 먹는 것이 깔끔해 보이지 않았으며 오물오물 씹고 튼 뺄어 버리는 모습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그러면 항상 남자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다. 속으로 이렇게 먹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속이 편했던 것 같다. 남자라고 밤길을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니는 척 해야했고 동네에서 돌다가 친구와 다튀도 절대 맞고 들어오면 안되었다. 마초적인 남자를 원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난 그쪽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성격이었다. 남들 다 가는 대학도 가야했고 아침일찍 일어나 사회 생활을 하는 패튼의 삶을 바라셨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면모를 바라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극심한 선택장애에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고 주로 밤에 글도 작업도 집중이 잘 되는 올빼미형 인간이었다. 하지만 2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좀 모자란가. 사회 부적응자인가. 나는 왜 그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나를 더욱 작아지고 불품없게 만들었다. 나까지도 나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지금생각해보면 꼭 남들과 똑같이 살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처럼 살 수도 없다. 그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탐구하여 어떤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지 알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한다. 우리는 어떤 폭력들 속에서 살아가는지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또한 폭력의 주체에 속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으면 한다. 폭력의 정의를 보면 물리적 강제력은 세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지만 이것 또한 폭력에 속하고 합법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다. 항상 인지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사랑받은 다른 비슷한 생명을 한 것이다.

나는 꼭꼭 숨어 사라이아? 라는 생명을 한다면  
대부분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감시 들어보았다. 내가 꼭꼭 숨어  
있었어? 나에게 꼭꼭 숨을 확을 믿을  
있었어? 여전 초등학생 교사를 한 적이  
있다. 여자 선생님을 사이라 몇몇은 남자선생님  
이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늘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다 수업시간에 꼭꼭 숨어  
있었던 아이들이 있어... 수업에 참여  
하지 않고 따로 표정을 짓는 것들... 나는  
옆으로 다가와 수업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려 했고  
동으로 사이라 나의 생명을 한 그 아이들  
은 꼭꼭 숨어 있었다. 나의 양치, 생강, 구  
사탕, 호박이 다른 생명을 한 아이들에게  
언제나 꼭꼭 숨어 있었다.





多記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무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나는 >10살밖에

그 사랑을 잊어버려라. 무연한 인생에

무연한 인생에 잊어버려라. 나는 이제 잊혀지고

전반인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별로일 아난듯 떠나는 사랑을 나는 무평정

으로 바라본다. 잊어버려라. 나는.

>HSH<I .

\* 고백

후배 하나가 사랑을 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 그 친구 자기와 닮아서  
좋아했고 서로 좋아씩 하며 서로에 대해  
또 많이 대해,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  
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서로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한 친구는 어날 계획을 하고 상대방  
은 양호하며 윈 윈 좋은 친구라고 생  
처럼 지내면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다.  
후배는 나에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행동

내가 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가 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이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가 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가 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가 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가 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가 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가 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가 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 \* 품목의 종류

## - > 상품의 품목

→ 누군가를 나에게 왜 사느냐를 잘하게

표현하지 않거나 말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왜 고민하여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따르는 사람. 소중히 있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 다양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

모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야 할까?

또 표현의 방식이 모든 사람? 꼭 사람

마다 다른 것인가?

- 관계의 폭력

- 가족의 폭력

→ 가장 소중한 사람이 폭력(tool)이다.  
내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간 툴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툴  
나에게 가장 위험한 툴이 되기  
한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사랑이라는  
표상기에 감추시기 쉽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 우선  
를 받을 수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나의 힘으로 풀려오기 쉽다. 저 삶  
신경적이다. 문제가 많다. 등...

- 시인의 품격

- 부의 품격

- 인사장의 품격

\* 장장노트를 다시 써.

이번 장장노트를 통해 많은 것들을 돌아볼게

도였다. 뭐나 품격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음악가들이 많았다는 것을.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이런 음악들을 나눠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글을 쓰며 개인

적 감성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은

통해 음악은 변형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었다 생각한다. 이런 기록을 위한

출판물이나 매체에 감사하며 글을 마친다.